

농촌 체험관광에 따른 Willingness to Pay 추정

박정원 · 최영완* · 윤용철** · 김영주**

(주)명소 IMC · *경상대학교 대학원 · **경상대학교 지역환경기반공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of Rural Tourism

Park, Jeong-Won · Choi, Young-Wan* · Yoon, Yong-Cheol** · Kim, Young-Joo**

Myong So IMC co., Ltd.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

***Dept. of Agricultural Eng.(Insti. of Agri. & Life Sci.), Gyeongsang National Univ.*

ABSTRACT : Recently urban areas have been advanced in the aspects of convenience, traffic, and cultural environments, but they have faced various problems including environmental issues, traffic congestion, and increasing stress. In contrast, rural areas are in charge of various functions, conservations of natural environments and traditional cultures. Rural life style may be beneficial to urbanites. As urbanite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leisure activities, such as experiences of tradition cultures and education, safe foods and rural tourism are gaining attention as alternative ways of satisfying their desires. In other words, the rural tourism not only provides urbanites with leisure spaces by playing a role in relation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ut also acts as a nonfarm income to the rural residents. With the changes of time, the number of current rural experience tourism on a nationwide is increasing and competition among locations is getting intensive. Particularly, despite various rural tourism villages in operation, there is not a standard in the dice for experience cost and accommodation costs. Accordingly, the aim of the study was to estimate urbanites' willingness to pay(WTP) for rural experience tourism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qualitative growth and revitalization with regard to the tours. The estimated WTP for rural experience tourism was found to be 5,600won for experience, 5,600won for food, 42,000won for accommodation, and 13,000won for purchasing farm products, respectively. This trend could be similarly found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in food cost) on all analyses, such as the research of the current situations of rural tourism villages in Gyeongnam province, the pilot survey and the estimation depending on whether or not urbanites experienced the tours. In other words, the WTP for urban hands-on experience tours estimated by this study is considered highly significant in terms with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in the sites. It is concluded that the urbanites' WTP for rural experience tourism obtained b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setup of standard index of rural tourism,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rural hands-on experiences, and the raise of nonfarm income.

Key words : CVM, WTP, Rural Tourism

1. 연구배경 및 목적

20세기 후반부터 OECD 국가들은 농산어촌의 어메니티를 주요한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편리함·쾌적함만이 아니라, 휴양적·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취급하

고 있다(조범호, 2001).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 등 국민들의 농촌공간에 대한 인식이 커다란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양원식 등, 2009).

그러나, 우리의 농업·농촌은 WTO, DDA 협상, FTA 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 그리고 국가 전체경제와 농림어업 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초생활 여건도 도시보다 취약하여 도농

Corresponding author : Kim, Young-Joo

Tel : 055-772-1935

E-mail : yjkim7171@gnu.ac.kr

간의 생활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위원회, 2005). 최근 도시지역은 생활편의성, 교통 및 문화환경적 측면 등에서 선진화되고 있으나,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 스트레스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촌지역은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의 보존, 여유로운 생활, 농림어업체험 등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도시민들의 여가활동, 전통과 문화체험 및 교육, 안전한 먹거리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촌관광이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다(나란희 등, 2010). 농촌관광은 도농교류라는 역할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반면 농촌주민들에게는 농외소득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1960년대 도입되어 1980년대 중반에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농촌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엄대호, 2006).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농업·농촌의 여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농촌관광을 도입하였으며, 2000년 이후 다양한 농촌관광 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 농촌관광은 농업정책의 하나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2년 농림부 등 중앙 부처는 농촌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농업·농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2002~2009)’ 및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2002~2009)’, ‘어촌체험관광조성사업(2001~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4~2017)’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나란희 등, 2010). 최근에는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통해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농촌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관광농원 형태 및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민박사업과 다르게 산업화 도시화로 상실되어 가는 농촌고유의 전통문화와 생활방식,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고, 도시민에게는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농촌관광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 전략으로서 농업·농촌의 자원과 관광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향상시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오승영, 2008).

한편,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최근 전국적으로 농촌체험관광의 양적팽창과 함께 지역간·마을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관광 관련 선행연구들은 농촌체험관광의 중요성과 필요성, 서비스 및 만족도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즉, 다양한 농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마을의 효율적 운영 및 유

지관리를 위한 체험비 및 숙박비 등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의 질적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연구방법 및 사례연구지역 농촌체험관광 현황

1. 연구방법

농촌관광은 농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이다(전영옥 등, 2003). 즉, 농촌관광은 도시민에게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전원 삶에 대한 동경을 충족시켜주고, 농촌 주민에게는 체험, 민박사업, 농산물 가공·판매, 특산물 생산, 관광 상품, 음식물 판매 등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 농촌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송화성, 2005).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농촌체험관광 관련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체험관광마을은 그 어떤 표준화된 지침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본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무작위의 응답자들에게 설문내용의 이해도, 지불의사금액의 정도, 참고자료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금액을 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 체험마을을 운영 중에 있는 경남지역의 24개 마을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CVM의 분석 방법 중, 이용자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좋은 질문법으로 알려져 있는 폐쇄형 질문법 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표 설계시 지불의사금액의 기준점은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리 설계된 제시 금액을 4가지 평가항목(체험비, 식비, 숙박비, 농산물구입비)별로 각각 5개의 범위로 제시하였으며, 유효표본 153부를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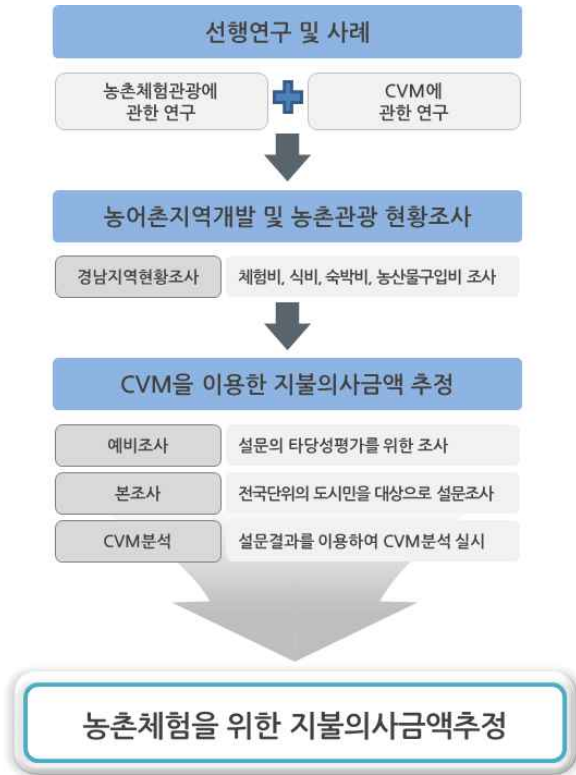


Figure 1 연구흐름도.

2. 사례연구지역 농촌체험관광 현황

현재 경남지역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팜스테이, 정보화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의 농촌체험관광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경남지역의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마을은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 24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경남지역의 농촌체험관광마을들의 현황조사는 2011년 6월에 실시하였고 주로 각 마을 홈페이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이 미흡한 마을은 전화문의를 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아래 Table 1의 체험비, 식비, 숙박비, 농산물구입비는 각 마을별 금액의 평균값으로 CVM을 이용한 지불의사금액 추정값과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현황과약을 하였다.

현재 경남지역에서 운영중에 있는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체험비 6,785원, 식비 5,375원, 숙박비 45,222원, 농산물구입비 16,228원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의 경우, 체험비는 2,138원, 식비는 960원, 숙박비는 12,276원, 농산물구입비는 7,463원으로 나타났다. 식비의 표준편차가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 마을

별로 비슷한 금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숙박비의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숙박시설의 노후도와 관리상태 그리고 서비스 부분의 차이가 숙박비의 금액 책정에서 다소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마을별 숙박시설의 표준화 된 금액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II. CVM을 이용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1. CVM 개요

CVM은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가치 측정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화에 대해 실제로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적 시장을 설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지불의사금액이나 보상요구액을 직접 설문하여 그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또한 CVM은 각종 환경재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매우 유용하

Table 1 경남지역 농촌체험마을 현황 분석

단위 : 원

분류	마을명	평균 값			
		체험비	식비	숙박비	농산물
녹색농촌 체험마을	입석	8,500	-	-	-
	평리	-	-	50,000	18,000
	내촌	5,500	-	65,000	30,000
	두모	8,333	-	60,000	17,500
	삼계	7,200	4,000	30,000	-
	중서	5,000	-	20,000	15,666
	무지돌이	3,800	7,500	40,000	-
	상법	5,000	-	50,000	5,000
	적량해비치	6,333	5,500	30,000	6,500
	덕월아이편	4,666	-	50,000	5,000
다호리고분군	5,000	5,000	50,000	15,000	
녹색농촌 체험마을 & 팜스테이	비봉내	-	5,000	-	20,000
	왕지등대	9,000	-	40,000	16,000
	송정환술	4,333	5,000	-	16,500
팜스테이	각사	8,333	-	-	-
	우포 가시연꽃	10,000	-	-	15,000
정보화 마을	아이스말기	6,966	-	-	21,000
	칠산참외	5,700	-	-	30,000
	서변	7,416	-	-	12,500
	월촌	12,000	-	-	30,000
농촌전통 테마마을	해바리	8,333	6,000	40,000	15,000
	남사에담촌	-	-	63,333	9,666
	산천렵	4,285	-	40,000	-
	물레방아떡	-	5,000	50,000	10,000
평 균	6,785	5,375	45,222	16,228	
표준편차	2,138	960	12,276	7,463	

* 식비 : 주변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많음.
* 숙박 : 1인당 금액을 책정하는 곳이 많음.

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1970년대 이후부터 생태 가치, 휴양지, 자연경관 등 다양한 종류의 편익을 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CVM은 시나리오, 사후분석 등에 주의하면 오류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Hicks의 후생개념, 즉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 : CS), 동등잉여(Equivalent Surplus : ES)가 WTP나 WTA를 통해 표현되므로 강한 이론적 근거를 가진다. 또한 효용함수에 대한 간섭이나 수요함수의 유도 등의 복잡한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후생변화척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CVM은 조사 설계가 난해하고 가설, 전략, 출발점, 지불수단, 편익(Bias)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권오상, 2010).

세계적으로 CVM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경제학분야에서가 아닌 마케팅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89년 엑손 발테즈호 사건 이후로 CVM은 신뢰받기 시작하여, CVM의 적용 분야 또한 자연휴양지, 경관, 습지, 대기 및 수질, 산림보호, 야생동물 보호 등 어떤 종류의 환경재 가치평가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CVM은 현재 환경재의 가치측정에 있어 가장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승우 등, 2005).

이와 같이 CVM은 적용범위가 넓고 존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각 개인이 실제로 행한 행위를 분석하여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이 상황에서 개인이 행할 행위를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매우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CVM을 사용하여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에는 설문지의 작성, 설문시행방법, 사후분석과정 등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권오상, 2010).

2. 예비조사 및 조사표 설계

가. 예비조사 방법

CVM을 이용하기 위한 조사표 설계를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조사와 마찬가지로 면담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등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면담조사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조사표 설계를 위하여 설문내용의 이해도, 지불의사금액의 정도, 참고자료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앞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사전에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방법 및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도시민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이다. 설문방법은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내용은 크게 체험비, 식비, 숙박비, 농산물구입비 등으로 구분하였다.

나. 예비조사 분석결과

도시민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 분석결과, 체험비 5,628원(1일), 식비 5,564원(1식), 숙박비 42,118원(가족단위 1박), 농산물구입비 13,266원 으로 나타났다(Table 3). 예비조사는 본조사표 설계시 기준점을 설계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다소 부족한 양의 데이터이나 현재 운영 중인 농촌체험관광마을(경남지역)들과 비교 하였을 때 비슷한 금액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조사표 설계의 기준점 척도로 사용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예비조사 개요

설문대상	o 도시민 64명
조사방법	o 조사원에게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개별설문조사 실시 o 개방형 질문법 사용
조사시기	o 2011년 4월 ~ 2011년 6월
조사내용	o 체험비, 식비, 숙박비, 농산물구입비

Table 3 지불의사추정금액

종류	지불의사금액
체험비	5,628원(1일)
식비	5,564원(1식)
숙박비	42,118원(가족단위 1박)
농산물구입비	13,266원

다. 본조사표 설계

본 조사에서는 크게 응답자의 특성과 농촌관광 경험 여부,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특성에서는 기본적인 연령과 성별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표를 설계하였고, 농촌관광 경험여부는 선호관광 및 경험여부에 따른 만족도와 이유, 그리고 체험을 할 때 선호하는 계절과 선호하는 체험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금액단위는 만원미만은 올림하여 천원단위로, 만원 이상은 오천원 단위로 통일하였다. 한편, 지불의사금액 추정은 앞서 예비조사의 추정치와 경남지역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평균값의 금액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체험비는 예비조사 5,628원, 경남지역 평균값은 6,785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조사가 비록 작은 양의 데이터이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조사 설계시

체험비 기준값을 6,000원으로 설정하였다. 식비는 예비조사 5,564원 경남지역 평균값은 5,375원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비슷한 근사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식비의 기준값을 6,000원으로 설정하였다. 숙박비와 농산물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근사치 금액이 나타났으므로 각각 50,000원과 15,000원으로 기준값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4개 항목(체험비, 식비, 숙박비, 농산물구입비)의 설정값을 기준으로 각각 ± 2 의 범위를 더하여 총 5개 범위의 금액을 제시하였다. 체험비와 식비는 각각 1,000원 단위, 숙박비는 10,000원 단위, 농산물구입비는 5,000원 단위로 설정하였다.

3. 지불의사금액 추정

가. 지불의사 유도방법

본 조사의 질문방법은 폐쇄형 질문법 중 하나인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 DC)을 사용하였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응답자에게 미리 정해진 특정 금액을 기꺼이 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실제의 시장상황을 모방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인일치하며, 응답자에게 단 1회에 걸쳐 미리 설정된 금액에 대해 지불의사를 “있다” 또는 “없다”로 한 번만 대답하는 방식이다. 또한, 응답자의 대답이 용이하여 응답률이 높고 출발점 편이나 설문조사원 편익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비합리적인 지불의사 발생가능성이 적은 이유로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 보고서에서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추천하고 있어(이관희 등, 2004) 이 연구에서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7월에서 10월까지이며, 전국에 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랜덤으로 추출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본은 총 200부에서 미회수 41부(20.5%)와 데이터의 일관성이 없는 6부(3.0%)를 제외한 153부(76.5%)의 유효표본을 가지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나. 지불의사금액 추정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0대가 60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 53명(34.6%), 40대 25명(16.3%), 50대 15명(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성비를 나타낸 것은 설문지를 무작위로 배포한 조사방법의 특성상 편중이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분포를 보면, 전국단위의 개별조사와 우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음에도 남, 여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77명(50%), 76명(50%)으로 균등한 분포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4 연령에 따른 성별 구성비

구성	연령	성별	
		남자	여자
20대	60명(39.2%)	23명(38.3%)	37명(61.7%)
30대	53명(34.6%)	27명(50.9%)	26명(49.1%)
40대	25명(16.3%)	16명(64.0%)	9명(36.0%)
50대	15명(9.8%)	11명(73.3%)	4명(26.7%)
합계	153명(100%)	77명(100%)	76명(100%)

2) 농촌관광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응답자들에게 도시관광과 농촌관광 중 어느 곳을 더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도시관광 72명(47.1%), 농촌관광 81명(52.9%)으로 농촌관광을 근소하게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관광의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48명(31.4%), 경험이 없는 사람은 105명(68.6%)로 나타나 농촌체험 경험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농촌체험관광 경험여부에 따른 선호관광

구성	선호관광	경험여부	
		유	무
도시관광	72명(47.1%)	5명(10.4%)	67명(63.8%)
농촌관광	81명(52.9%)	43명(89.6%)	38명(36.2%)
합계	153명(100%)	48명(31.4%)	105명(68.6%)

한편, 농촌체험관광 경험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8명 중에서 43명(89.6%)이 농촌관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05명 중 67명(63.8%)이 도시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여부에 따라 선호하는 관광에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체험관광 경험여부에 대한 연령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20대는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53.3%), 40대(40.0%), 30대(37.7%)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연령대의 경우 자녀들의 체험학습에 대한 관심과 농촌에 대한 관심 고조, 애향심 등의 이유로 체험경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Table 6).

농촌체험관광을 선호하는 계절은 ‘가을’ 83명(54.2%)과 ‘봄’ 36명(23.5%)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체험은 ‘자연생태체험’이 61명(3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레포츠체험’ 39명(25.5%), ‘전통문화체험’ 31명(20.3%), ‘농림어업체험’ 22명(14.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6 농촌체험관광 경험여부에 따른 연령 구성비

경험여부	20대	30대	40대	50대	계
있다	10명 (16.7%)	20명 (37.7%)	10명 (40.0%)	8명 (53.3%)	48명 (31.4%)
없다	50명 (83.3%)	33명 (62.3%)	15명 (60.0%)	7명 (46.7%)	105명 (68.6%)

Table 7 선호체험별 선호계절 구성비

체 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농림어업 체험	4명 (11.1%)	6명 (19.4%)	11명 (13.3%)	1명 (33.3%)	22명 (14.4%)
전통문화 체험	4명 (11.1%)	3명 (9.7%)	22명 (26.5%)	2명 (66.7%)	31명 (20.3%)
자연생태 체험	17명 (47.2%)	13명 (41.9%)	31명 (37.3%)	0명 (0.0%)	61명 (39.9%)
건강/ 레포츠체험	11명 (30.6%)	9명 (29.0%)	19명 (22.9%)	0명 (0.0%)	39명 (25.5%)
기 타	0명 (0.0%)	0명 (0.0%)	0명 (0.0%)	0명 (0.0%)	0명 (0.0%)

3) 지불의사금액 추정

가) 체험비

Table 8은 농촌체험관광의 체험비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6,000원까지는 지불의사가 매우 높고, 7,000원까지는 과반수이상인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제시 금액인 8,000원은 지불의사가 50%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보면, 4,000원과 5,000원에서는 지불의사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000원 이상부터는 대체적으로 지불의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7,000원과 8,000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8).

Table 8 농촌체험관광의 체험비에 대한 지불의사

지불 의사	체 험 비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있다	148명 (96.7%)	147명 (96.1%)	110명 (71.9%)	85명 (55.6%)	74명 (48.4%)
없다	5명 (3.3%)	6명 (3.9%)	43명 (28.1%)	68명 (44.4%)	79명 (51.6%)

농촌체험관광의 경험여부에 따른 체험비 지불의사 분석결과는 Table 9와 같다.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8,000원의 최고 금액까지도 과반수이상인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7,000원의 금액에서 지불의사가 50%까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체험관광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만족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도시민들의 여가활동이자 자녀들의 교육적 의미는 물론이고 농촌체험관광의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Table 10의 연령에 따른 체험비 지불의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불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40대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현실성, 입시 위주의 교육 등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Table 9 체험여부에 따른 체험비 지불의사

체험경험 여부	지불 의사	체 험 비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있다	있다	48명 (100.0%)	46명 (95.8%)	39명 (81.3%)	32명 (66.7%)	27명 (56.3%)
	없다	0명 (0.0%)	2명 (4.2%)	9명 (18.8%)	16명 (33.3%)	21명 (43.8%)
없다	있다	100명 (95.2%)	101명 (96.2%)	71명 (67.6%)	53명 (50.5%)	47명 (44.8%)
	없다	5명 (4.8%)	4명 (3.8%)	34명 (32.4%)	52명 (49.5%)	58명 (55.2%)

Table 10 연령에 따른 체험비 지불의사

연령	지불 의사	체 험 비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20대	있다	56명 (93.3%)	58명 (96.7%)	39명 (65.0%)	30명 (50.0%)	27명 (45.0%)
	없다	4명 (6.7%)	2명 (3.3%)	21명 (35.0%)	30명 (50.0%)	33명 (55.0%)
30대	있다	53명 (100.0%)	53명 (100.0%)	47명 (88.7%)	36명 (67.9%)	31명 (58.5%)
	없다	0명 (0.0%)	0명 (0.0%)	6명 (11.3%)	17명 (32.1%)	22명 (41.5%)
40대	있다	25명 (100.0%)	22명 (88.0%)	14명 (56.0%)	10명 (40.0%)	8명 (32.0%)
	없다	0명 (0.0%)	3명 (12.0%)	11명 (44.0%)	15명 (60.0%)	17명 (68.0%)
50대	있다	14명 (93.3%)	14명 (93.3%)	10명 (66.7%)	9명 (60.0%)	8명 (53.3%)
	없다	1명 (6.7%)	1명 (6.7%)	5명 (33.3%)	6명 (40.0%)	7명 (46.7%)

나) 식비

농촌체험관광의 식비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7,000의 금액에서 지불의사가 거의 반반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8,000원의 금액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4,000원과 5,000원은 지불의사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6,000원부터는 지불의사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남지역체험마을의 평균 식비 5,375원과 식비 지불의사금액 6,000원에서 체험여부에 상관없이 80% 이상의 응답자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운영 중인 경남지역의 식비는 상향조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1 농촌체험관광의 식비에 대한 지불의사

지불 의사	식비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있다	147명 (96.1%)	146명 (95.4%)	123명 (80.4%)	80명 (52.3%)	59명 (38.6%)
없다	6명 (3.9%)	7명 (4.6%)	30명 (19.6%)	73명 (47.7%)	94명 (61.4%)

농촌체험관광의 체험여부에 따른 식비 지불의사 분석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체험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6,000원의 금액에서 80% 이상의 응답자가 지불의사를 보이다가 7,000원에서는 50% 아래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7,000원에서 지불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생활에 근거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2 체험여부에 따른 식비 지불의사

체험경험 여부	지불 의사	식비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있다	있다	48명 (100.0%)	47명 (97.9%)	39명 (81.3%)	22명 (45.8%)	18명 (37.5%)
	없다	0명 (0.0%)	1명 (2.1%)	9명 (18.8%)	26명 (54.2%)	30명 (62.5%)
없다	있다	99명 (94.3%)	99명 (94.3%)	84명 (80.0%)	58명 (55.2%)	41명 (39.0%)
	없다	6명 (5.7%)	6명 (5.7%)	21명 (20.0%)	47명 (44.8%)	64명 (61.0%)

Table 13의 연령에 따른 식비 지불의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연령층에서 6,000원까지는 약 70% 이상이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7,000원에서는 40대 연령층에서 32%가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40대에서는 앞의 체험비와 마찬가지로 지불의사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3 연령에 따른 식비 지불의사

연령	지불 의사	식비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20대	있다	55명 (91.7%)	56명 (93.3%)	52명 (86.7%)	35명 (58.3%)	25명 (41.7%)
	없다	5명 (8.3%)	4명 (6.7%)	8명 (13.3%)	25명 (41.7%)	35명 (58.3%)
30대	있다	52명 (98.1%)	51명 (96.2%)	41명 (77.4%)	28명 (52.8%)	23명 (43.4%)
	없다	1명 (1.9%)	2명 (3.8%)	12명 (22.6%)	25명 (47.2%)	30명 (56.6%)
40대	있다	25명 (100%)	24명 (96.0%)	17명 (68.0%)	8명 (32.0%)	3명 (12.0%)
	없다	0명 (0.0%)	1명 (4.0%)	8명 (32.0%)	17명 (68.0%)	22명 (88.0%)
50대	있다	15명 (100%)	15명 (100%)	13명 (86.7%)	9명 (60.0%)	8명 (53.3%)
	없다	0명 (0.0%)	0명 (0.0%)	2명 (13.3%)	6명 (40.0%)	7명 (46.7%)

다) 숙박비

Table 14는 농촌체험관광의 숙박비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50,000원의 금액에서 60%를 상회하는 지불의사를 나타냈지만, 60,000원에 대한 지불의사는 25%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30,000원~50,000원은 지불의사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50,000원부터는 지불의사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50,000원 이상은 대체적으로 지불의사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체험관광의 체험여부에 따른 숙박비 지불의사 분석결과는 Table 15와 같다. 숙박비의 경우에는 체험여부와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50,000원 금액에서는 체험여부에 상관없이 과반수 이상이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0,000원의 금액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의 연령에 따른 숙박비 지불의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000원의 금액에서는 모두 80% 이상의 지불의사를 나타냈으며, 50,000원의 경우 4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층에서 60% 이상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40대의 경우 60,000원, 70,000원의 금액에서 제일 낮은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Table 14 농촌체험관광의 숙박비에 대한 지불의사

지불 의사	숙박비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	70,000원
있다	149명 (97.4%)	132명 (86.3%)	97명 (63.4%)	38명 (24.8%)	23명 (15.0%)
없다	4명 (2.6%)	21명 (13.7%)	56명 (36.6%)	115명 (75.2%)	130명 (85.0%)

Table 15 체험여부에 따른 숙박비 지불의사

체험 경험 여부	지불 의사	숙박비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	70,000원
있다	있다	47명 (97.9%)	42명 (87.5%)	31명 (64.6%)	14명 (29.2%)	8명 (16.7%)
	없다	1명 (2.1%)	6명 (12.5%)	17명 (35.4%)	34명 (70.8%)	40명 (83.3%)
없다	있다	102명 (97.1%)	90명 (85.7%)	66명 (62.9%)	24명 (22.9%)	15명 (14.3%)
	없다	3명 (2.9%)	15명 (14.3%)	39명 (37.1%)	81명 (77.1%)	90명 (85.7%)

Table 16 연령에 따른 숙박비 지불의사

연령	지불 의사	숙박비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	70,000원
20대	있다	58명 (96.7%)	55명 (91.7%)	41명 (68.3%)	19명 (31.7%)	10명 (16.7%)
	없다	2명 (3.3%)	5명 (8.3%)	19명 (31.7%)	41명 (68.3%)	50명 (83.3%)
30대	있다	52명 (98.1%)	43명 (81.1%)	34명 (64.2%)	12명 (22.6%)	8명 (15.1%)
	없다	1명 (1.9%)	10명 (18.9%)	19명 (35.8%)	41명 (77.4%)	45명 (84.9%)
40대	있다	24명 (96.0%)	20명 (80.0%)	13명 (52.0%)	4명 (16.0%)	2명 (8.0%)
	없다	1명 (4.0%)	5명 (20.0%)	12명 (48.0%)	21명 (84.0%)	23명 (92.0%)
50대	있다	15명 (100.0%)	14명 (93.3%)	9명 (60.0%)	3명 (20.0%)	3명 (20.0%)
	없다	0명 (0.0%)	1명 (6.7%)	6명 (40.0%)	12명 (80.0%)	12명 (80.0%)

라) 농산물구입비

농촌체험관광의 농산물구입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17을 살펴보면 15,000원의 금액에서는 85.6%, 20,000원의 금액에서는 69.9%의 지불의사를 보이다가, 25,000원의 금액에서는 41.8%까지 지불의사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7 농촌체험관광의 농산물구입에 대한 지불의사

지불 의사	농산물구입비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있다	147명 (96.1%)	148명 (96.7%)	131명 (85.6%)	107명 (69.9%)	64명 (41.8%)
없다	6명 (3.9%)	5명 (3.3%)	22명 (14.4%)	46명 (30.1%)	89명 (58.2%)

농촌체험관광의 체험여부에 따른 농산물구입비 지불의사 분석결과는 Table 18과 같다. 20,000원까지는 체험여부에 상관없이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5,000원에서는 체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25,000원의 금액에서도 약 50%의 지불의사를 보였으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25,000원의 금액에서 약 40%를 이하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이는 25,000원의 금액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체험여부와는 상관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와, 직거래 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9의 연령에 따른 농산물구입비 지불의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연령층에서 20,000원의 금액은 과반수 이상이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대의 경우, 20,000원까지의 지불의사가 100%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8 체험여부에 따른 농산물 구입비 지불의사

체험경 험여부	지불 의사	농산물구입비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있다	있다	46명 (95.8%)	46명 (95.8%)	41명 (85.4%)	38명 (79.2%)	25명 (52.1%)
	없다	2명 (4.2%)	2명 (4.2%)	7명 (14.6%)	10명 (20.8%)	23명 (47.9%)
없다	있다	101명 (96.2%)	102명 (97.1%)	90명 (85.7%)	69명 (65.7%)	39명 (37.1%)
	없다	4명 (3.8%)	3명 (2.9%)	15명 (14.3%)	36명 (34.3%)	66명 (62.9%)

Table 19 연령에 따른 농산물구입비 지불의사

연령	지불 의사	농산물구입비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20대	있다	56명 (93.3%)	58명 (96.7%)	49명 (81.7%)	36명 (60.0%)	22명 (36.7%)
	없다	4명 (6.7%)	2명 (3.3%)	11명 (18.3%)	24명 (40.0%)	38명 (63.3%)
30대	있다	52명 (98.1%)	52명 (98.1%)	48명 (90.6%)	38명 (71.7%)	27명 (50.9%)
	없다	1명 (1.9%)	1명 (1.9%)	5명 (9.4%)	15명 (28.3%)	26명 (49.1%)
40대	있다	24명 (96.0%)	23명 (92.0%)	19명 (76.0%)	18명 (72.0%)	8명 (32.0%)
	없다	1명 (4.0%)	2명 (8.0%)	6명 (24.0%)	7명 (28.0%)	17명 (68.0%)
50대	있다	15명 (100%)	15명 (100%)	15명 (100%)	15명 (100%)	7명 (46.7%)
	없다	0명 (0.0%)	0명 (0.0%)	0명 (0.0%)	0명 (0.0%)	8명 (53.3%)

마) 지불의사금액(WTP) 추정

이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설계하였으며, 최종적인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

Table 20과 같다. 지불의사금액 추정은 평균값, 중앙값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체험비와 식비는 각각 5,600원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되었으며, 숙박비와 농산물구입비는 각각 42,000원, 13,000원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체험관광의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체험비 5,700원, 식비 5,000원, 숙박비 32,000원, 농산물구입비 14,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의 경우 체험비 5,600원, 식비 5,700원, 숙박비 33,000원, 농산물구입비 14,000원으로 나타났다. 식비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0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 추정

구 분	체 험 여 부		지불의사금액
	유	무	
체험비	5,700원	5,600원	5,600원
식 비	5,000원	5,700원	5,600원
숙박비	32,000원	33,000원	42,000원
농산물구입비	14,000원	14,000원	13,000원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농촌체험관광 지불의사금액은 향후 농촌체험관광 사업시책 기준설정 및 농촌체험관광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본정보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도시민에게 농촌체험관광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최근 도시지역은 생활편의성, 교통 및 문화·환경적 측면 등에서 선진화되고 있으나,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 스트레스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촌지역은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의 보존, 여유로운 생활, 농림어업체험 등 도시민에게 유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도시민들의 여가활동, 전통과 문화체험 및 교육, 안전한 먹거리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촌관광이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즉, 농촌관광은 도·농교류라는 역할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반면 농촌주민들에게는 농외소득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최근 전국적으로 농촌체험관광의 양적팽창과 함께 지역간·마을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농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비 및 숙박비 등에 대

한 표준화된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체험관광의 질적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남지역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농촌체험마을의 평가항목별 평균값은 각각 체험비 6,785원, 식비 5,375원, 숙박비 45,222원, 농산물구입비 16,228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체험비, 식비, 숙박비, 농산물구입비)별 지불의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민 대상 지불의사금액도 체험마을의 평가항목별 평균값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2.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한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조사표를 설계하고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일반적 인식조사 및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본조사는 2011년 7월에서 10월까지 랜덤 추출로 전국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표본수 총 200부 중 미회수 41부(20.5%)와 데이터의 일관성이 없는 6부(3.0%)를 제외하고, 유효 표본수 153부(76.5%)를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3.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분석결과, 72명(47.1%)이 도시관광을 선호하였으며 81명(52.9%)은 농촌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계절과 체험의 경우, 가을(54.2%), 봄(23.5%), 그리고 자연생태체험(39.9%)이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였다.

4. CVM을 이용한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평가항목별로 각각 체험비 5,600원, 식비 5,600원, 숙박비 42,000원, 농산물구입비 13,000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남지역 농촌체험마을 실태 및 예비조사, 농촌체험의 경험유무에 따른 추정결과 등 모든 분석결과에서 매우 유사한 값(식비는 미소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였다. 즉, 이 연구에서 추정된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현장 적용가능성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도출된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도시민들의 지불의사추정금액은 농촌관광의 표준화 지침 작성 및 농촌체험의 질적 향상,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현장 적용성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사항목의 다양화 및 표본수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12년 하반기 도입예정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제도¹⁾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제도는 사업자가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숙박·음식 등에 대한 품질수준을 도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한 후, 관광호텔업과 같이 시설·서비스 등 수준을 측정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원하는 마을의 등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2. 5. 2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2012년) 중 하위법령이 정비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제가 도입될 예정이다.(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2.05.08.,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도입된다.)

참고문헌

1. 권오상, 2010, 환경경제학, 박영사, 497-546.
2. 김승우, 김홍균, 유상희, 이호생, 임중수, 정태용, 한택환, 홍종호, 2005, 환경경제학 - 이론과 실제, 박영사, 119-156.
3. 나란희, 윤용철, 김영주, 2010, AHP법을 이용한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의 성과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 Vol.44(4), 57-68.
4.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위원회, 2005,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과 2005년도 시행계획, 농림부.
5. 송화성, 2005, 라이프스타일이 농촌어메니티자원 선

호 및 농촌관광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양원식, 김영주, 고영배, 윤용철, 2009, AHP법을 이용한 농촌지역유형 구분, 농업생명과학연구, Vol.43(1), 61-71.
7. 엄대호, 2006, 농촌마을의 그린투어리즘 성과지표 개발 및 수익 추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오승영, 2008, 농촌관광정책사업 마을리더의 핵심역량에 관한 실증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이관희, 김영표, 2004, CVM에 의한 농촌환경개선사업의 경제적 가치평가, 농촌계획, Vol.10(3), 33-39.
10. 전영욱, 강형기, 김현호, 박용규, 심상민, 이주희, 강신겸, 2003, 지역경제 새싹이 돋는다, 삼성경제연구소.
11. 조범호, 2001, 환경시대에 있어서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 하(2)호, 3-10.

접 수 일: (2012년 5월 2일)

수 정 일: (1차: 2012년 5월 31일, 2차: 6월 11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1일)

■ 3인 익명 심사필